

보험심사간호사회 창립 30주년 맞아

“국민건강보험 향상과 건전한 의료문화 선도”

보험심사간호사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학술세미나가 9월 26일 서울 엘타워 그랜드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보건의료 발전과 함께한 보험심사간호사회 30년, 국민건강지킴이의 아름다운 동행은 계속됩니다' 주제로 열렸다. 전국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심사간호사회의 지난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손순이 보험심사간호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험심사간호사회는 1989년 창립 후 인고의 세월을 거쳐 무르익은 절정의 시점 30주년을 맞게 됐다”면서 “보험심사간호사는 독보적인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는 점에서 여러분 모두 언제 어디서나 자긍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대변혁에 놓여 있고,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요구도는 최상의 수준으로 끊임없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정책 파트너로 적극 참여하고, 유관 기관과 소통하면서 일정적으로 일하고 보험심사간호사회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보험심사간호사회는 지난 30년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 공헌해왔



03 보건의료제도 발전에 기여하여 신뢰받는 국민건강지킴이가 된다.

다”면서 “이는 여러분이 끊임 없이 연구하고 공부해온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간호사의 행위가 수를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보험심사간호사가 국제적으로 수출되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면서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 대독)은 축사를 통해 “보험심사간호사회는 적정진료 질 관리와 건강보장성 강화의 최일선에서 맹활약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정책의 성립 과정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왔다”면서 “보험심사간호사들이 보험정책의 전문가로서 더 많은 정책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강창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비전 선포식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향상과 건전한 의료문화 선도한다’ 미션 아래 3가지 비전이 제시됐다. △회원 자질 향상과 전문성을 추구한다 △적정진료비 관리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최고의 교육기관이 된다 △보건의료제도 발전에 기여하여 신뢰받는 국민건강지킴이가 된다.

이와 함께 보험심사간호사회 역사를 담은 영상물 상영, 샌드아트 공연,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학술세미나는 ‘진료비 지불제도 및 심사체계의 발전방향’ 주제로 열렸다. 진료비 지불제도의 현재와 미래, 진료비 심사평가체계의 방향, 진료비 심사 및 지불체계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진숙 기자 jslee@



김중희 국회의원 초청 간호정책 간담회

전북간호사회 간호현안 건의

전북간호사회(회장 안옥희)는 김중희 국회의원 초청 유관기관 간호정책 간담회를 9월 20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전북간호사회 안옥희 회장, 전북보건교사회 김은애 회장, 보건진료소장회 김숙자 전 회장을 비롯해 김제·부안지역 간호사 및 보건교사 7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옥희 회장은 간호현안 및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은 간호법 제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중희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현안에 관심을 갖고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유주 기자 yjchoi@



광주시간호사회 간호정책 설명회

광주시간호사회(회장 이숙자)는 간호정책 설명회를 9월 20일 빛고을전남대병원에서 개최했다.

간호정책 설명회에는 광주시간호사회 이숙자 회장을 비롯해 광주 지역 간호사 200여명이 자리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

최유주 기자 yjchoi@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한국 간호의 정책 과제” 주제로 특강을 했다.

한국간호 100년 역사 및 최신 간호정책 쟁점,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안 및 간호·조선법안 내용 등을 설명했다.

보험심사간호사회 30주년 포상

보험심사간호사회는 9월 26일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육효순 삼성서울병원 보험기획팀장, 김영인 인천의료원 보험심사팀장, 정선미 고대안암병원 보험심사파트장, 박상주 가톨릭대 성민센터 병원 진료협력센터 팀장, 이필순 동의대병원 보험심사팀장, 최옥연 서울의료원 보험심사팀 간호사, 엄선영 목포한곡병원 보험심사부장, 오선영 인하대병원 진료운영

지원파트장, 한선희 단국대병원 보험심사팀장, 박현숙 보험심사간호사회 사무처장

◇대한간호협회장상= 이인우 강동성심병원 감사실장

◇공로패= 홍미란 서울아산병원 적정진료팀 UM, 이미정 고대구로병원 심사평가팀장, 최화선 강북삼성병원 보험팀장, 서남희 보험심사간호사회 부장

◇감사패= 장은혜 대한병원협회 보험급여국장, 정규숙 간호사신문 편집국장.

보수교육 프로그램

정보 안내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

edu.kna.or.kr

병원간호사회, 전국 병원 간호사 ‘1004Day 봉사활동’

2019년 1004Day(천사데이) 간호사 봉사활동 주제가 ‘건강한 삶은 간호사와 함께-건강을 지키는 깨끗한 손, 올바른 손씻기’로 정해졌다.

병원간호사회(회장 박영우)는 올해 1004Day를 작년과 동일한 주제로 올바른 손씻기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간호사 봉사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10월 4일 1004Day 전후로 전국의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친다.

병원간호사회는 올해 1004Day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했다. 간호사들이 환자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제작했으며, 병원간호사회 홈페이지(khna.or.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병원간호사회는 ‘1004Day 간호사 봉사활동’ ‘간호문화 개선 활동’ 주제 UCC 공모전도 개최한다. 출품규격에 맞게 제작해 오는 11월 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한편 병원간호사회는 1004Day 간호사 봉사활동을 올해까지만 진행하며, 내년부터는 ‘간호문화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진숙 기자 jslee@

서울시간호사회, 간호사진 및 포스터 전시

10월 16~20일 ... 서울 경복궁역 서울메트로미술관

서울시간호사회(회장 박인숙)가 공모한 ‘제17회 간호사진 및 제1회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이 가려졌다.

이번 수상작 및 입선작 전시회는 10월 16~20일 서울 경복궁역 서울메트로미술관 2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시상식은 10월 16일 열린다.

이번 공모전은 ‘I am a Nurse’ 주제로 간호사진 및 포스터 부문으로 진행됐다. 2020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간호의 본질, 가치관, 정체성 등을 표현한 작품들을 접수 받았다.

간호사진 부문의 경우 64점, 포스터 부문의 경우 21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간호사진 및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간호사진 부문 △금상= ‘별들도 잠든 밤에 등불처럼 빛나다’ (유미옥·서울대병원) △은상= ‘NICU(And I See You) 그리고, 널 바라보다’(이현주·고대구

로병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소중한 사람)’(김경아·중앙대병원) △동상= ‘Sincere’(정은영·순천향대 서울병원) ‘뽕뽕뽕’ 건강지킴이(진필수·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21세기 간호의 새 패러다임 - 미스터 나이팅게일’(장안우·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차근차근, 천천히’(백경희·이대목동병원) ‘베테랑의 손길’(강주연·고대안암병원) ‘나는 간호사입니다’(이송자·이대서울병원)

◇포스터 부문 △금상= ‘2020 I am a Nurse’(김정숙·순천향대 서울병원) △은상= ‘우리는 늘 당신 곁을 지키는 간호사입니다’(사람가득32병동·서울시어린이병원) ‘내 마음속에 간호사’(정해수·경희의료원) △동상= ‘나는 간호사입니다’(임종민·건국대병원) ‘넵넵저스(NURVENGE-RS)’(슈퍼히어로·중앙대병원) ‘I am a Nurse’(정한람·중앙대병원).

이진숙 기자 jslee@



제20회 메플 전산초 명예교수 기념 학술대회

제20회 메플 전산초 명예교수 기념 학술대회가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정책의 과제’ 주제로 9월 27일 개최됐다.

연세대 간호대학(학장 이태화)과 김도원간호학연구소가 주최하고, 메플 전산초 학술교육재단이 후원했다.

이태화 학장은 “평생을 간호전문직 발전을 위해 애쓰셨던 전산초 명예교수님의 정신을 기리는 학술대회가 올해로 20회를 맞이했다”

면서 “국제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하나인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보

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간호의 역할을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정책의 전망’ 주제로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이 강연했다. 이어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제제도’ ‘건강보험에서 수가 신설과 간호수가’ ‘간호사 배치수준과 환자결과’ 등의 발제강연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 앞서 메플 전산초 연세대 명예교수 추모예배가 열렸다. 전산초 명예교수는 대한간호협회장을 지냈으며, 간협신보(현 간호사신문)를 창간했다. 1999년 타계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간호학 전문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NAVER 간호교육연수원 검색

시작부터 합격까지 ‘간호교육연수원’은 다릅니다.



합격지원 응원 현장

- ✓ 임상생활 또는 현재생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 구축
- ✓ BMW (버스, 전철, 도보) 자투리 시간 활용을 위한 온라인 + 모바일 무상 제공
- ✓ 혼자서가 아닌 전문 학습 담임제에 의한 1:1 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



5단계 학습 시스템 제공

간호직공무원/ 보건진료직공무원/ 보건직공무원/ 보건복지부공무원 / 보건교사 / 공사·공단 취업 /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080-913-0909

www.ganhohak.co.kr

